휴가철 · 아시아 · 아프리카 여행시 콜레라 감염 주의 당부

●

2011년 첫 번째 해외 유입 콜레라 환자 발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7월 11일 해외유입을 통한 콜레라 환자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콜레라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환자와 여행한 일행 10명의 명단을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였으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기간 중 인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콜레라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콜레라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많이 낸 진료비, 건강보험이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26만명에게 4,631억원 환급 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 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2011년 하반기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 부담이 인하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